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2.8(화) ~ 2022.2.14(월)

제공일시 2022 02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2.8(화) ~ 2022.2.14(월)

제공일시 2022 02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탄소배출권 ‘톤당 100유로’ 코앞…유럽 ‘전기값 인상’에도 영향

-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2005년 거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톤(t)당 100유로(13만7300원)**를 코앞에 두고 있음
-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1년 이래 200% 이상 상승한 상태로, **이번 겨울 공급 부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면서 발전용 석탄이 증가한 데다, EU의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에 대비하기 위한 거래 수요까지 몰려 급등한 것**

(아주경제, 2022.2.7) 최지현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220213/348116>

2. 중국, 원자력 기술 수출 길 열렸다…영국서 설계 승인

- 영국 정부가 중국광핵그룹(CGN)의 자국 내 원자로 설계를 승인함으로써 중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물꼬가 트임
-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행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값비싼 수입 천연가스 대신 원자력과 같은 전기 공급원에 더 의존해야 함**

(한국경제, 2022.2.8) 박주연 기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08002>

3. 덩치 커진 테슬라, ‘오너 리스크·서비스·사회공헌’ 구설수도 지속

- 지난해 전세계 전기자동차(EV) 판매량 1위를 지켜낸 테슬라에 대한 구설수가 잇따르고 있음. 지난 8일, 업계에서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인종차별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릴 것**에 대비하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
-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현직 직원들이 인종 차별과 관련한 사내 발언, 분위기 등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며, 또 서비스 관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핀포인트카, 2022.2.8) 김종형 기자
http://www.pinnpointcar.com/news/pip/2022020802026946_6

4. 구글, 공급망 위험요인에 ‘산불’ 추가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 6일, **연간보고서 공시를 통해 ‘산불’을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추가**. 기존에도 구글은 공급망 위험요소 섹션에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 위험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이번 공시에서는 더 많은 사례가 언급됨
- 구글뿐 아니라 **미국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급망 위기의 중장기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주시**하고 있음

(한국경제, 2022.2.6) 김리안 기자
<http://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06002?view=detail>

1. 선진국 100%, 국내 0% 수두룩...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율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서 발표한 ‘RE100* 2021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애플, 알파벳 (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밴코브아메리카, 영국 카나리워프그룹,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독일 SAP 등은 RE100 100%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됨**

(이코노미스트, 2022.2.7) 강필수 기자
<https://economist.com/2022/02/07/policy-reg/20220712142844.html>

-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자 거대 기업들의 RE100 참여 증가 추세,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RE100 가입 증가.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RE100 전환율이 33%에 그침.** 아모레퍼시픽은 5%에 불과하며, 한국수자원공사·SK·SK머티리얼즈·SK 실트론·SK텔레콤·SK하이닉스·SKC는 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

2. 韓기업 투자 뛰어든 블랙록, 칼라일 등과 SK온 입찰경쟁

-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에 투자할지 검토 중

(매일경제, 2022. 2. 10) 강우석 기자
<https://news.nae.com/article/newsappet019/019433020220210>

- 블랙록의 사모펀드 부문이 국내 기업 투자를 검토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블랙록이 SK온의 전방 시장인 전기차 분야 성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해외IR 재개 포석, 銀 연초부터 ESG채권 대거 발행

- KB국민, 우리, 전북은행 등 국내 은행에서 연초부터 ESG채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음. 은행들이 이른 시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해외 IR(기업공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

(파이낸셜뉴스, 2022.2.10) 최경식 기자
<https://www.nae.com/article/newsappet019/019433020220210>

- 해외 IR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ESG채권 발행이 투자 유치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됨

4. 삼성전자, 2023년부터 매출 100만 유로 넘는 국가서 디지털세 낸다

-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23년부터 100만 유로(1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함**

(아시아경제, 2022.2.7) 권해영 기자
<https://www.asiatraveltour.com/2022/02/07/0193829848>

- 대상은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1700억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포함되며, SK하이닉스는 향후 실적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

1. 올해 상장사 주총 주요 이슈는 산업재해·이사회 다양성

- 올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과 산업재해 이슈가 중점적으로 부각될 전망**
- 한국ESG연구소는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관여 활동 증가를 예상함
- 1분기 기준 152개사 대상기업 중 77.6%인 118개사가 여성임원 선임을 완료했고, 22.4%는 미선임 상태이며, 고정보수 대비 성과보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산업재해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 관여활동 증가 또한 예상됨

(마켓인사이트, 2022. 2. 8) 김은정 기자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202080272>

2. 윤석열 “정치가 과학 침범”…탄소중립 로드맵 전면수정 재확인/이재명 “현장실습생 노동 인권 보장, 산업재해 근절”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의 ‘2030년 탄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두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또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되어 한다”며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 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함
-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정 정비를 공약**하였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66번째 공약으로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근절,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확대 방침 등을 밝힘

(에너지경제, 2022.2.8) 오세영 기자
<https://www.enr.kr/web/view.php?key=2022020800010174>

(해럴드경제, 2022.2.8) 배두현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0800043>

3. 오락가락 중대법…고용부 "해외법인은 제외" 검찰 "적용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됐지만 정부부처 간에도 엇갈린 해석이 나와 기업 현장의 혼선**이 우려됨.
-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을 통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한 것과,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중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고용노동부가 정면으로 배치
- 재계는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

(매일경제, 2022.2.10) 김희래 기자
<http://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0/00045022174?date=20220211>

4. 매출 300대 기업, 올해 ESG 사업 더 키운다…전담인력은 부족

- **매출액 300대 기업 10곳 중 8곳은 ESG 관련 예산과 인력을 더 늘릴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공개
- **ESG 전담부서 직원의 업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기업 비중이 93.3%에 달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구성원의 업무 경력이 2년 이하인 곳이 54.1%, 3년에서 5년이 39.2%를 기록
- 한편, 기업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는 탄소배출량 감축(37.1%), 신재생에너지 활용(23.0%), 친환경 기술 개발(13.5%)이며,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이어지고 있음. 사회 분야 우선과제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35.6%),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22.0%), 인권경영(12.7%)이며, 특히 안전 분야 시스템 확충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아시아경제, 2022.2.8) 이해영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2080014140574>

1. 롯데건설, 건설업계 최초 ESG 안전 역량 평가제도 도입

- 롯데건설이 파트너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ESG 안전 역량 평가제도 도입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안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섬
-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PC공사 등 고위험 공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해 안전 역량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기타 영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

(매일경제, 2022.2.8) 조성신 기자
<https://news.mk.co.kr/news/web.php?view=2022021111388>

2. 포스코에너지, 풍력회사 품었다...친환경 드라이브 가속

- 포스코그룹 내 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포스코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
-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전남 신안군 일대에서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신안그린 에너지'의 경영권 확보 작업을 완료할 예정

(조선일보, 2022.2.8) 김우영 기자
http://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08/463242794741522440043/1an_suse-ran/1an_med/mo/gall/1an_comp/gall/2

3. LG가 만든 ESG성적표, 경영 평가에도 활용하나

- LG그룹이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LG ESG 지수'를 개발 예정, KPI(핵심성과지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
- ESG지수는 기후행동지표, 물회복지표, 인적자본지표, DE&지표, 안전지표 등으로 구성, 각 항목을 표준화 점수화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며 DJSI, MSCI, 서스테이널리티스, 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평가기관 사용지표와 특성화 지표 등으로 구성
- 환경 부문을 더욱 강화하고 지배구조 부문 지수도 추가 개발될 예정이며, 실제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ESG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 올해 ESG정책이나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 'LG ESG 리포트'도 발간할 예정

(헤럴드경제, 2022.2.11) 문영규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1102025>

4. "ESG 실천" LG, 배당 투명성부터 높였다

-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LG 계열 상장사 다섯 곳이 향후 3년간 적용할 배당 원칙 공개에서 ESG 경영 차원에서 배당 투명성을 높이기로 함
-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기관은 배당 원칙을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지 여부를 G(지배구조) 부문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
- 올해부터 주요 대기업에 ESG 경영이 정착하면서 장기 배당 원칙을 밝히는 곳이 급증했고,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SDI, 롯데정밀화학 등은 실적 발표를 통해 배당액 증액을 선언함

(한국경제, 2022.2.13) 송형석·김형규 기자
<https://news.koreaeconomic.com/article/news/202202130201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2.8(화) ~ 2022.2.14(월)

제공일시 2022 02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ESMA,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 발표... 그린워싱 대응 정조준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빠르게 부상 중인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의 우선과제를 식별해 액션플랜을 담은 **‘2022-2024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Sustainable Finance Roadmap)’**을 11일(현지시간) 발표
- **ESMA가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의 빠른 성장 때문.** 국제사회가 저탄소 경제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이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지속가능성’이란 이름으로 금융시장에 몰릴듯이 들어오기 시작. 그러나 **빠른 성장만큼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등의 여러 리스크가 제기됐고, 건전한 시장 형성의 책임을 가진 ESMA가 리스크를 선별해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 것**
- 로드맵은 현재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이 직면한 리스크 식별을 토대로 우선과제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액션플랜을 제시. ESMA가 식별한 리스크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 규제 문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의 모호성 ▲ESG 라벨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결핍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ESMA와 NCA(국가 관할 당국)의 전문지식, 경험, 감독 부족 ▲금융 종사자들의 전문지식 부족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ESG 평가 방법론 부재 등임
- 특히, **ESMA는 규제들간의 불일치와 모호성이 그린워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성장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럽 국가별로 규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서로 불일치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아 그린워싱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일례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자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 식별하기 위해, ESG 투자를 ‘환경 또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투자’로 정의한 SFDR의 8조는 ‘환경과 사회’ 범주와 ‘변화’가 갖는 의미가 국가별, 금융사별로 서로달라 모호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모호성이 악용되어 그린워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 이와 같이 **식별된 리스크를 토대로 ESMA는 3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집중적인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 제시된 우선과제는 ▲그린워싱 대응과 투명성 촉진(Tackling greenwashing and promoting transparency) ▲지속가능한 금융 분야의 NCA와 ESMA 역량 구축(Building NCAs’ and ESMA’s SF capacities) ▲ESG 시장 및 리스크 모니터링, 평가, 분석(Monitoring, assessing and analysing ESG-related markets and risks)
- 지속가능한 금융의 빠른 물결 가운데, 이 **3가지 우선과제 대응이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시장과 재무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응을 위한 7가지 액션플랜을 수립.** 7가지 액션은 ▲투자관리(Investment management) ▲투자서비스(Investment services) ▲발행인 공시 및 지배구조(Issuers’ disclosure and governance) ▲벤치마크(Benchmarks) ▲등급(신용 및 ESG 등급) (Ratings (credit ratings and ESG ratings)) ▲거래 및 거래소(Trading and post-trading)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등임

(ESGToday, 2022.2.11)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target-market-regulator-esg-greenwashing-act-2022-2024-sustainable-finance-roadmap/>
(ESMA, 2022.2.11)
<https://www.esma.europa.eu/press/news/press-releases/press-release-2022-02-11-esg-greenwashing-in-the-sustainable-finance>

- ‘투자관리’에 대한 액션은 모호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SFDR 8조 기준의 명확성에 기여하는 것과 규제 기술 표준을 검토해 제시하는 것. 또, 지속가능한 금융 규제를 일관성 있게 조정할 방침. ‘투자서비스’는 규제기관과 금융섹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교육을 활성화하고 ESG 데이터 수집 방법론 등을 일관성 있게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의 액션이 담겨 있음. ‘발행인 공시 및 지배구조’ 액션은 녹색채권 등의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 발행인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건전한 금융상품 발행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초점 맞춰져 있음. 이 밖에도 금융을 통한 기후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ESG 등급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 또 탄소거래 시장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액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 거래의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

- ESMA의 ‘2022-2024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library/esma30-379-1051_sustainable_finance_roadmap.pdf